

개에 물린 사건과 마태오 5장 44절

Jane De-Rose Bamman, 국가형제회 봉사자

국제형제회와의 우리의 관계

by Mary Frances Charsky, OFS
International Councilor

피조물의 찬가 - 성찰 - 2 부

나의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연약함과 고난을 견디는 자들을 통해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다
샤론 윈젤러, OFS

양성: 재속프란치스코 회원의 삶의 본질

by Layna Maher, OFS
National Formation Commission Chair

영적보조자란 무엇인가?

By Jerome Wolbert, OFM,
National Spiritual Assistant (미국 국가 영적보조 신부님)

OFS-USA 제 21 차 5 년 주기 전국총회 안내(Q2026)

등록 시작: 2025 년 8 월 15 일

개에 물린 사건과 마태오 5장 44절

Jane De-Rose Bamman, 국가형제회 봉사자

최근에 개에게 물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 마주쳤을 때는 친근해 보였지만, 지나치는 순간 돌아서서 제 다리를 물었습니다. 살짝 무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세계 물렸습니다! 아무런 자극할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누가 알겠어요... 개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경험은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 특히 원수들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식 못하지만,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 예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루카 1:70-71). 마태오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 성경 구절들은 우리에게 '원수'란 무엇이며, 과연 누가 우리의 원수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사전에 따르면, 'enemy(원수)'는 '나쁜 친구'란 뜻의 라틴어 *inimicus*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나에게도 원수가 있을까요? 가족, 형제회, 지역 사회 또는 세상에 '원수'나 '나쁜 친구'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딱히 떠오르는 사람은 없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오만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피하곤 합니다. 원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수라는 것은, 그들 자신이 적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진짜 원수일까요? 서로를 미워해야만 원수일까요? 만약 그것이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라면, 그래도 '원수'의 정의에 부합할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전엔 동료였고 지금은 경쟁자가 된 사람을 원수로 여긴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남편 브라이언과 저에 대해 험담을 했다고 느껴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마주

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끊기보다는, 이제야 마태복음 5장 44절을 실천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아직 작업 중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을 차이점이나 그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원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웃이 시끄럽게 하거나 마당을 정리하지 않아 평화롭고 조용한 삶이나 재산 가치에 해를 끼친다면, 그들도 원수로 볼 수 있습니다. 형제회 안에서도, 어떤 형제자매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거나, 우리가 받아야 할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나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 가족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보려 합니다.

나중에서야 나에 아무런 악의가 없다는 것을 알게된 사람을 원수로 단정한 잘못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있었던 상황의 전후 사정을 알려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복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지혜로운 말씀은, 그들과 관계를 맺으라는 초대입니다. 함께 지내다 보면, 때로는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원수와 관계를 맺음으로서 그 사람이 친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나쁜 친구”에 대해 악감정을 품기보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실천하려고 선택했지만, 동네 떠돌이 개들은 여전히 조심하려 합니다.



국제형제회와의 우리의 관계

by Mary Frances Charsky, OFS
International Councilor

국제 형제회 CIOFS 와의 관계는 우리 모두가 전 세계 세속 프란치스코 형제자매가 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전 국가 총봉사자인 톰 벨로(OFS)가 우리에게 우리는 네 개의 형제회의 구성원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단위, 지구, 국가 및 국제 형제회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프란치스코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속프란치스코 형제회의 국제 형제회는 재속프란치스코회의 국제 평의회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CIOFS)의 지도와 활성화 지원을 받습니다. 이 형제회는 OFS 회칙, 회헌, 예식 및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합니다.

국제평의회는 전 세계 구가 형제회에서 선출한 70 명의 국제평의원, CIOFS 의장단(선출직 봉사자들 및 평의원), 프란치스코 청년회(YouFra)대표, 네 명의 총 영적 보조자로 구성됩니다.

재속회의 모든 단계의 목표는 각 형제자매가 자신의 재속 프란치스코 성소에 따라 거룩함을 이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애 안에서 살며 항상 서로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미국 국가형제회(OFS-US)의 국제평의원으로 봉사하는 것은 제게 큰 기쁨입니다! 전 세계의 형제, 자매들과 형제들과 함께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게해주는 일인 동시에 가슴 벅찬 일입니다! 3 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저의 임무입니다. 국제평의회(CIOFS)와 국가 형제회 간의 소통과 제가 대표로 있는 국가 형제회의 이름으로 총회에서 발언/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평의회(CIOFS)의 새로운 로고와 브랜드 디자인입니다. 웹사이트 <https://www.ciofs.info> 에 따르면 "세상을 비추는 태양처럼 타우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의 광선"이라는 설명이 에 나와 있습니다.

로고는 글자와 함께 또는 글자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티보르 카우저(Tibor Kauser, OFS) 총봉사자가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로고를 볼 수 있습니다.



Ordo Franciscanus Saecularis
Consilium Internationale

현재 국가 형제회의 부봉사자인 미국의 메리 스트로낙(Mary Stronach, OFS)이 의장단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메리는 6 년 임기 동안 의장단에서 봉사한 최초의 미국 출신 회원입니다. 6 년마다 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합니다. 임시 3 년 주기의 총회는 국제 형제회의 주제, 우선사항, 예산 및 규정을 다루기 위해 모입니다.

페루 출신의 아나 마리아 라포 라오스(Ana Maria Raffo Laos, OFS)가 미국 국가형제회(OFS-USA)의 국제평의회(CIOFS)연락 담당자로 임명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나 마리아와 토마스 킹가 판조 수바 신부님(Fr. Tomas Ginga Panzo Suva, OFM Cap, 총 영적 보조자)는 2025 년 9 월에 있을 미국 국가형제회(OFS-USA) 전국 선거를 주재하고 참관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의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자선의 정신으로 복음에 따라 매일의 삶을 통해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는 강력한 증인이 되도록 격려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명이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되는 복스 프란치스카나,국제 형제회 뉴스레터

<https://ciofs.info/news/vox-franciscana/>를 읽어보세요.

이 뉴스레터는 미국의 밥 스트로낙(Bob Stronach, OFS) 형제가 편집하고 있습니다. 선거, 방문, 유프라 모임 등 전 세계 각국 재속회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글로벌 프란치스코 가족입니다!

피조물의 찬가 - 성찰 - 2 부

나의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연약함과 고난을 견디는 자들을 통해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다
샤론 윈젤러, OFS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제 2 차 세계 대전 중 네 번의 강제 수용소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두 사람 모두 고통이 우리 삶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찬가에서 말했듯이, 그리고 프랭클이 그의 저서 『인간의 의미 탐구』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고통에 의미 있는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인간성과 영적 성장 능력을 확고히 합니다.

두 사람 모두 고통을 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고통이 우리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데려다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랭클은 고통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에 더 가까이 데려다준다고 밝힙니다. 두 사람 모두 고통이 우리의 영성을 성장시킨다고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 있다고 인정하십니다. 마태복음 26 장 39 절에 기록된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 프란치스코는 용서하고 사랑과 인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느님 은혜의 증인이라고 밝힙니다. 특히 고통스럽거나 불의한 상황에서 그들의 행동은 강력한 예배의 형태이며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 장 34 절에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보여 주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겸손, 연민, 그리고 고통을 하느님과의 일치로 이끄는 길로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프란치스코회의 가치는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프랭클은 역경에 직면했을 때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절망하거나 창조할 수 있습니다. 사랑, 인내, 용서를 창조할 때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창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프랭클이 확신한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는 방식입니다.



이방식은 하느님과 가까워지려는 프란치스코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프랭클은 그의 연구를 통해 역경에 대한 가장 심오한 반응은 차선책, 즉 용서하거나 시련과 고난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견뎌내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힘든 시기를 건너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플 때 우리는 사람들을 아름다움에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프랭클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태도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프란치스코가 정의한 완전한 기쁨의 연장선입니다. 프란치스코와 레오 형제가 추운 날씨에 걷던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도원에 도착했는데 문지기가 우리를 들여보내 주지 않고, 도둑이라고 부르고, 때리고, 얼음 같은 밤에 버려두더라도 우리가 이 불의를 인내심 있게 그리고 사랑으로 견뎌낸다면, 그것이 바로 완전한 기쁨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완전한 기쁨의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프랭클은 상상할 수 없는 3 년간의 고통과 강제 수용소에서의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견뎌냈지만, 깊은 공감과 다른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연민과 목적의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찬가에서 프란치스코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게하고, 프랭클의 연구가 지적하듯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여줍니다.

양성: 재속프란치스코 회원의 삶의 본질

by Layna Maher, OFS
National Formation Commission Chair

양성은 재속 프란치스코회원이 되기 위한 단순한 요건이 아니라, 우리 소명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이는 평생에 걸친 회개와 내적 변화를 향한 여정이며,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의 정신 안에서 우리를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형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초기 양성은 배움과 성숙, 그리고 소명 식별의 여정을 시작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형제자매들과의 형제적 생활을 체험하며,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으로서의 특권과 책임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초기 양성은 개인과 형제회 모두에게 프란치스코적 소명이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통찰과 도구를 제공하며, 이 길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살아갈 소명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영속적 양성은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에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끊임없는 회개와 내적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바른 양성은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며, 현재의 여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도록 이끕니다. 양성은 우리 삶의 방향, 우리가 내리는 선택, 타인과 맺는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며, 과연 우리가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깊이 묻게 합니다. 영속적 양성은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의 삶,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 우리 각자의 소명 안에서 성숙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여정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의 삶과 저술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며, 우리의 여정을 굳건히 세워 줍니다. 그들의 복음에 대한 철저한 사랑, 깊은 겸손, 그리고 흔들림 없는 신앙은 우리의 길을 밝혀 주며, 양성이 단지 지적 탐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적 회개와 외적 실천의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은 우리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주며, 단순함과 평화, 정의, 그리고 창조세계에 대한 돌봄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회칙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느님과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여정입니다.

회칙 제4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원은 복음을 열심히 읽고,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재속 프란치스코회원은 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삶은 성 프란치스코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셨듯,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우리가 복음에 점점 더 익숙해질수록,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 쉬며,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이끌어 줍니다.

회칙 제 15조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활기에 찬 창의력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특히 사회 생활의 각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자신의 신앙에 걸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의 삶과 시간, 자원을 얼마나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어려운 선택에서 드러나곤 합니다.



회칙에 따라 사는 삶은 하느님, 이웃, 세상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변화시켜줍니다.

사진 출처: Pexels의 ATC Comm Photo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고, 사랑하며, 용서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 주십니다. 예를 들어, 마태오 복음 25장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 장면에서 “주님, 언제 주님께서 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이시거나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이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보고 있습니까? 돕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젊은이, 노인, 노숙인, 병자, 수감자, 이민자, 가난한 이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우리의 도움을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현존이 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리는 선택과 행동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세상에 드러냅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을 세상에 비추는 길입니다.

양성은 우리에게 회개와 내적인 변화를 경험할 기회를 주며, 우리가 진정으로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에 따라 살아가고 서약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고 있는지 깊이 분별하도록 도와줍니다. 양성은 우리가 기쁨과 겸손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세상에 전하는 부르심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밝혀 주는 등불입니다.

영적보조자란 무엇인가?

By Jerome Wolbert, OFM,

National Spiritual Assistant (미국 국가 영적보조 신부님)

당신은 재속회원이 아닌분께 영적보조를 어떻게 묘사 하겠는지요? 나는 내가 봉사하기위해 모집하려는 많은 수도자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에 대해 대답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거의 완전하고 매우 간결하고, 완전히 정확해야 합니다. 영적보조자로 일한 적이 없는 신부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모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영적보조자가 하는 것을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 재속회 미팅, 평의회미팅 과 초기 양성 모임 참석; 평의회에서 봉사하지만, 선거나 재정문제에는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평의회원으로 봉사하는것, 영적 입력을 제공하고 형제회의 형성과 영적/전례생활을 감독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하는 일만큼을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형제회의 프란치스칸 카리스마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보조자들은 지시를 내려서는 안되지만, 때로는 지시를 내려야 할때 도 있습니다. 영적보조자들은 형제회를 지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제회 회원들에게 도전해야 합니다. 영적이고 사목적인 보조는 친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길 잃은 양을 찾아야 할때도 있고, 길을 잃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질질 끌거나 밀 때입니다. 듣기는 영적 및 사목적 보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보조자는 듣고 다른이들이 듣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를 더 잘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

영적보조자 역할중 일부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즉시 그 형제회가 수도사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누군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연결을 용이하게 하는것

이상입니다. 교회법 (CIC 303) 은 수도자들이 각 형제회에 ‘더 높은 절제 (altius moderamen)’ 또는 외부 관점에 대해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카리스마 있는 한 멤버에 의해 해고된 형제회의 일원이 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런 일이 우리 형제회에서는 결코 일어나지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아마도 다른 종류의 그룹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단체에는 이러한 외부의 절제, 즉 ‘프란치스칸 카리스마를 보장’ 하기위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심판이 경기장에서 팀의 일원이 될수 없듯이, 보조자는 형제회 밖에서 형제회와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양치기는 양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걷습니다. 이것은 누가 영적 보조자가 될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대답의 일부분입니다.

책임성

이 요구사항의 ‘외부’ 부분은 이것이 일종의 책임→견제와 균형임을 보여줍니다. 한 집단만 지배하는 곳에서는 실수를 잡거나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할 기회가 적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견제와 균형 (외부 절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성

3 월에 CNSA 는 36 개의 단위 형제회와 절반의 지구 형제회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법령중 하나의 시행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은 어떤 수준에서도 자신의 형제회의 영적보조자로 임명 될 수 없습니다. (IS 78.2)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많은 재속 프란치스칸들의 봉사를 무시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글에서 ‘누구’에 대한 질문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중요하며, 단지 수도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제쳐놓아서는 안 된다는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사실 IS 78.1 은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이 영적 보조자로 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총 영적보조자가 10 년전에 허용하기를 주저했던 것입니다.

OFS-USA 제 21 차 5 년 주기 전국총회 안내(Q2026)

등록 시작: 2025 년 8 월 15 일



**프란시스칸 부활의 영성으로
신앙의 불꽃을 회복하자**

Q 준비 위원회는 현재 제 21 차 5 년 주기 전국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2025 년 8 월 15 일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은 이번 Q 에 참석 시 예상되는 경비입니다.

- 조기 등록비: \$550(1 인)
- 호텔 숙박비: \$196/1 박(세금 포함, 4 박 총 \$784)
- 2 인 1 실: \$98/1 박(1 인당, 4 박 총 \$392)
- 개인 여비는 별도

지난 5 년 주기 총회 이후 물가가 크게 올라 경비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참석을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경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경우, 소속 지구 또는 단위 형제회를 통해 경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국 차원의 경비 지원 신청에 관련된 안내는 2026 년 초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총회가 1 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특별한 모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온라인 또는 Gospel to Life 서점을 통해 전국 Q 경비 지원 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원 방법으로는, 지구 형제회, 단위 형제회 또는 개인 회원이 Q 2026 프로그램 책자에 글을 올려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책자는 모든 등록자 패키지에 들어 있습니다. 게재 신청 양식은 소속 지구 형제회 회장에게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준비 위원회는 행사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스폰서를 유치하였습니다. Lexington 지역 컨벤션 및 방문자국(VisitLEX)에서 총회 개최 지원으로 \$10,000 을 후원해 주었으며, 두 가톨릭 의료기관인 CHI Saint Joseph Health, Saint Claire Healthcare 와 켄터키 Notre Dame 수녀회가 총 \$20,000 기부를 약속하여 행사 비용을 보조하고 Appalachia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26 년 Q 가 모든 참석자에게 은혜롭고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 모두 함께 준비해 나갑시다.



7 월 20 일 - 8 월 2 일

렉싱턴, 켄터키 주